

졸병수첩

이젠 불태워 버려라!

패배자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목적을 추구하는 모습,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행태 등은 군사 문화 영향의 대표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장 일 순

(사회학과 교수)

군사문화하면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는 총, 칼, 탱크, 군복, 군부 등 무력이나 폭력 등과 관계된 것들을 우선 생각하게 되고 관념적인 것으로서는 명령이나 복종 등 위계와 관계되는 권위주의, 일사분란함을 보여주는 획일주의, 복장 및 몸치장을 강조하는 형식주의, 공격성과 관계되는 전투정신 등을 떠올리게 한다. 어쨌든 군사문화는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과거 5·16 군사 쿠데타와 12·12사건 등 군의 무력 및 폭력에 의해 문민정부가 무너진 뒤 군사정권의 독재 및 횡포가 심하였기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군사문화가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군사문화란 군대조직내에 있게되는 하위문화로서의 군대문화와는 달리 군대조직내의 문화현상뿐만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군대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군사문화는 민간문화와는 다른 이질적 존재로서 이해되어야 할 수 있다.

군사문화가 우리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5·16 군사 쿠데타를 들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일제 식민지시대의 군국주의에 의한 무단정치 또한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해방 후 한국분단과 한국전쟁을 통한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치관계는 군의 존재 및 가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국가의 존립과 방위를 위해서는 강한 군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했기 때문에 자유당 정권이 군사정권이 아니었음에도 군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국토방위의 의무는, 꼭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였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도 일정한 시간의 제식훈련 및 군사훈련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군사문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 시기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출신의 대통령이 계속 집권했던 지난 30년간이다. 이들 군출신 대통령들은 행정부, 국영 기업체 및 기타 사회 단체등의 주요직책에 전역고급장교들의 고용을 주선함으로써 군사문화를 우리 사회의 구성구석에 확산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때 사관학교출신으로 군에서 5년이상 복무한 장교들을 정부의 5급(사무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군사문화의 확산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1977년에서 1982년까지 행정직(외교·감사직 포함) 416명 기술직 119명 등 총 535명이 채용되어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에서 근무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11대국회(1981~1985)에서 276명의 국회의원 중 29명(10.5%)이 군출신이었다. 특히 1973년에는 총 219명 중 46명(21%)이 군출신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그동안 우리 한국사회에 군사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군사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게 된 배경은 일제 식민지시대의 군국주의 영향과 해방후 한국전쟁과 더불어 남북한 간의 적대적인 군사적 대치, 그 후 5·16과 더불어 30년간의 군출신 대통령에의 통치일 것이다.

그러면 군사문화가 우리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첫째 군사문화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 다시 말해 과정 및 절차를 무시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과 가치를 한국국민의 머리 속에 뿌리 깊게 심어주었다. 구체적으로 정권 또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역대 군사정권들은 정상적인 방법대신 총과 칼과 탱크를 사용했지만 국가의 최고지위에 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이런 삶이 현명하고 삶에 득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으로써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가치가 한국사회에 확산되게 되었다. 대학생들이 그들의 주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장실을 점거하고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에 덤비는 것이란가 자기 자식 성

적을 올리기 위해 교사들에게 손질을 들고 가는 학부모들의 행태, 노동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리적인 행사로 들어간다는가, 민원문제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농성이나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행하는 것, 그리고 얼마전 신한국당에서 치렀던 대통령 후보 경선의 절차를 거쳐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패자들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행태 등은 군사 문화 영향의 대표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군사문화의 두 번째 영향은 힘과 폭력의 논리를 한국사회에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이성이나 법과 규범 또는 규정보다도 권력이나 힘이 있는 자가 목적을 높이고 밀어부치면 대부분의 일들이 성사되는 것은 바로 군사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그동안 한국사회의 공격성과 폭력의 꾸준한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로 군사문화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획일화, 집단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어느 기업이나 단체, 조직의 행사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유니폼을 입힌다던가 마찬가지로 조직의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고,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등은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고 방식과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격정신, 전투정신 등도 군사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군사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군사문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긴 기간동안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쳐왔기에 하루 아침에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민정부 이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 해온 것은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도 정치지도자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동참하여 뿌리 깊은 군사문화를 청산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에 기여하는 군의 모습

시대 변천에 따라 대민 지원 업무 주력

수재민 구호등 기동력 바탕한 구조 활동

한국 현대사에서 군의 임무는 국토 방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건설하고 물난리 때마다 구호 활동을 벌이고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까지 모두 군의 몫이었다.

좀 더 공식화된 말을 쓰자면 국토개발과 대민직접 지원사업, 군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0년대 초반 민간부분의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 공사가간을 단축시켰다.

국토개발사업이 민간 기술의 중대로 많이 줄어들면서 대민직접 지원 사업은 여전히 군의 주요한 임무로 자리잡고 있다. 매해마다

건설하던 경험을 살려 산간 오지나 해안을 잇는 도로 등을 건설하고 다리와 학교 교원등의 공공 건축물을 세워 급속한 경제 발전을 뒷받침 할 사회 간접 자본 형성에 공헌하였다.

군은 정부 고속도로의 건설이나 천호대교 잠수교의 건설 당시지원에 나서기도 했으며 1975년에서 1977년 까지 진행되었던 김포대교 공사에도 군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공사가간을 단축시켰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상 소외되기 쉬운 낙도의 각종 의료

물난리가 날때면 텔레비전에서 수재민 구호활동을 벌이는 군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항공사고나 해상사고가 났을 때도 군은 빠른 기동력으로 구조활동을 벌여왔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한 대민 지원 사업. 1960년대에 약 1백60여 만명의 병력이 농번기노동지원에 투입되었으며 70년대에는 1백90여 만명 80년대에는 약100여 만명이 농촌인력 지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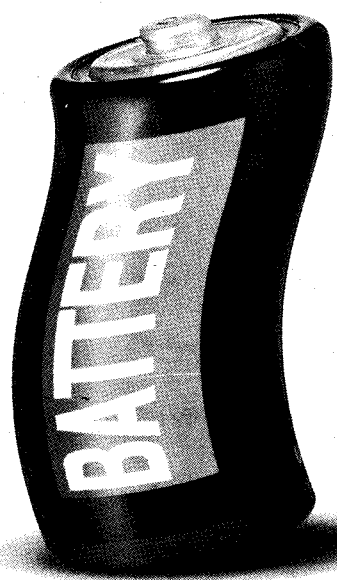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상 소외되기 쉬운 낙도의 각종 의료

및 문화적 혜택 수여나 자연 보호 운동 참여 헌혈활동 국제 경기 지원등의 국가 시책지원사업에도 군은 적극적이였다.

군의 또다른 주요 역할은 인력 양성이다. 군은 전기 전자 통신 기술 부분에서의 군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흔히 군사문화의 유포의 측면에서 군대는 많은 비판을 받곤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군은 본연의 역할인 국가 안보의 긍정적적인 사회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수정 기자)



일회용 人材?

인재를 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기업이 있습니다.

금융 MBA 과정에서 21C FED 과정까지 대한생명은 여러분들을 금융전문가로 충전해 드립니다.

인재를 키우는 기업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주도할 금융MBA 과정.
국내 유수대학원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위탁교육에 이어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금융 MBA 과정은 21C 종합금융그룹을 이끌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한생명의 인재 양성 의지입니다.

국내 및 해외 투자자산을 운용할 21C FED 과정.
2년간 국내 및 국제 연수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 육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생명의 의지입니다.

※21C FED과정 : Financial Expert Development (금융전문가과정)

행복의 길잡이
대한생명

